

중구 예단포항, 정부 사업 선정

‘활력 넘치는 新 도시 어촌’ 탈바꿈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대표 어항 중 하나인 예단포항이 ‘도시와 어촌다움이 공존하는 신(新) 도시 어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예단포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70억 원 등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예단포항’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자리한 어촌으로, 과거에는 수산물 집하와 어업활동이 활발했으나, 대규모 매립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해 어항 기능이 침체하며,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예단포항의 낙후된 어항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모사업 선정에 도전했다. 특히 이번 대상지 선정은 민관이 톡톡 물쳐 5번째 도전 끝에 이룩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실제로 구는 전문가 자문, 지역협의체 운영 등은 물론,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보완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5일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평가위원회를 통과해 2026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기점으로 해수부·인천시 등과 협력해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구, 쿠팡이츠와 협력해

이동노동자 사고 예방 추진

남동구는 쿠팡이츠 서비스와 협업을 통한기 대비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캠페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간에 쫓겨 정비를 미루던 이동노동자의 이륜차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정비사가 참여해 이륜차의 제동장치, 타이어, 배터리 등을 정밀 안전점검하고,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등을 교체했다.

또한, 남동구는 야간 가시성 확보를 위한 LED 암밴드를 지원하고,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안내 등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썼다.

구는 앞서 160여 명의 이동노동자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장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 후 수료자 대상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인천생활물류센터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 뜻깊은 캠페인이 되도록 힘을 보탰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사고 위험이 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남동구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 개최

유네스코 창의도시(디자인 분야)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국제 협력·전략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2025 인천창의X디자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한 ‘창의도시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초청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인천시는 인천 창의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전문

가 공개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한국, 영국, 일본의 창의도시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창의도시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시민디자인단의 ‘인천 창의도시 아이디어’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민·관·학 협력 중심의 지속가능한 창의도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시민디자인단 발표에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창의도시 아이디어를 공유해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디자

인 중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디자인 분야) 가입의 실질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사전 등록(<https://form.naver.com/response/hJC0TAfTFRQVdUWqFn1n-g>) 현장 참여 이벤트를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직접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에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경유 노선을 쉽게 확인하고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하린 기자

연수구, ‘폭력 및 신종 범죄 예방 통합교육’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신종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신종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

점을 맞춰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성평등 지도력(리더십)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서로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6회 동구청장배 전국 외발자전거대회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제6회 동구청장배 전국 외발자전거대회를 지난날 19일 송현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후원하고, 동구체육회와 동구외발자전거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 2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행사를 즐겼다.

대회 종목은 200M 경기, 장애물경기,

크로스컨트리 세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각 종목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본 대회가 동구만이 아닌 전국 외발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발자전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계양구, 아동통합보호 ‘연결고리’ 회의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1월 5일, 지역 내 취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아동통합보호를 위한 ‘연결고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육복지사, 계양구 희망복지팀·드림스타트팀,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연결고리 회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협력 회의로, 상·하반기 정기 운영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로 발굴된 보호 필요 아동 32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돼 아동 보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제9회 인천 초등교육 페스티벌’ 교학상장 나눔 열기 가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관내 초등학교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예비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인천 초등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읽견쓰와 함께하는 우리다움의 돌과력, 교학상장으로 성장하다’라는 주제 아래 초등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학상장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랩하는 초등교사 달지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EBS 다큐프라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수업 코칭 전문가로 활동한 김태원 작가의 특강, 주제별 워크숍,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성훈 교육감의 ‘읽견쓰AI(아이) 이야기’ 강연과 ‘제4회 인천 초등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영상 상영으로 인간다움과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19개 주제별 워크숍을 운영하며 현장 사례 공유와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교학상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교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김선준, 진혜진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